

연재

신나게 커가는 새끼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lovnat@hanmail.net

# 신나게 커가는 새끼들。

“덥다. 더워!” 인간은 이리 더워하지만 적어도 동물새끼들만큼은 이 더운 날씨가 추운 것에 비하면 100배는 더 낮은 것 같다. 그래서 계절번식 동물로 불리는 초식동물은 물론 대부분의 야생동물들 새끼는 봄에 낳아 여름에 길러진다. 올해는 대체 무슨 운이 좋은 해일까? 번식을 잘 하는 토끼해라서? 아무튼 우리 동물원에는 참 징조가 좋은 해이다. 귀한 새끼들이 줄줄이 출산 릴레이 행렬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그물무늬기린 기린 초롱이가 스타트를 끊었고 뒤이어 코요테, 사불상, 흥부리 황새가 태어났다.

이들 동물들은 그 동안 우리 동물원에서선 한번도 새끼를 낳아 보지 못한 동물들이었다. 사슴, 무플론 산양, 당나귀, 캥거루, 호랑이 그리고 각종 조류들도 대부분 잘 태어났고 얼룩말도 곧이어 태어날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 연재

+  
신나게 커가는 새끼들



비록 잘 태어났더라도 양육시 실패한 경험들이 많은데 올해는 이상케 이런 일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스스로 잘 낳고 잘 키워주니 모성 넘치는 어미들에게 그저 기특하고 고마운 마음뿐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내 시야에서 결코 벗어나게 할 순 없다. 개인적으로 날마다 커가는 모습을 놓치고 싶지 않고, 또 행여 도중에 급한 문제라도 생기면 될 수 있으면 늦기 전에 빨리 대처하고 싶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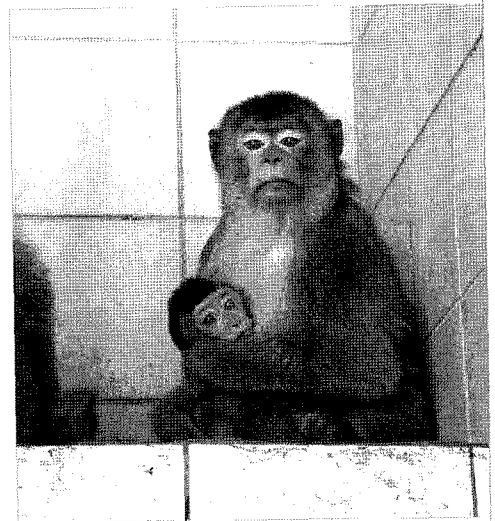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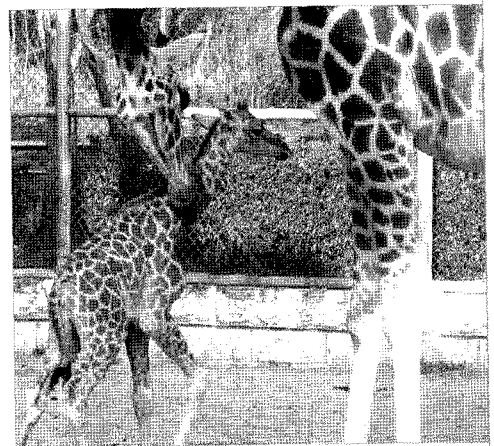
작년 이맘 때 태어난, 이곳 수의사회지에 낳는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소개한 적도 있는 우리 아시아 코끼리 우치(수)와 우리(암)는 정말 말 그대로 날마다 신나게 쑥쑥 커가고 있다. 수명(60~70년)이 거의 사람과 비슷하니 이제 갓 돌을 넘긴 셈이다. 하는 행동도 천방지축 정신없는 인간의 돌쟁이들과 아주 비슷하다. 덩치가 큰 동물인 만큼 다른 동물과 다른 특징이 몇 가지씩 보이는데, 우선 네 다리가 몸에 비해 정말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기둥처럼 두껍고 짱짱하다. 발바닥은 막도장처럼 그냥 밋밋한 밀가루 반죽 같다. 또 코 길이가 마치 피노키오의 코처럼 몸의 크기에 비례해 날마다 조금씩 거짓말처럼 길어지고 있다. 암수의 차이도 이젠 분명히 들어난다.

우리는 비교적 양전한데 비해 우치는 정말 그 넘치는 남성 호르몬을 주체할 수 없나 보다.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한다. 초산인 어미들도 분만 초기의 공격적 흥분을 이제 다 가라앉히고 차분히 새끼들을 돌보고 있다. 작년에 새끼가 막 태어날 당시 처음에는 어미도 새끼의 접근에 모성을 잃고 흥분했고, 새끼도 그런 어미가 무서워 자꾸 달아나려 들어 그걸 어떻게 극복하나 답답하고 힘들었던 노력의 시간들이 벌써 과거가 되어버렸고 지금은 차분히 앉아서 그들의 재롱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들어가면 새끼들이 성큼 성큼 다가온다. 이미 이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인간보다 힘이 센지 무기를 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아버렸다. 처음엔 아무런 무장도 없이 빈손으로 먹이만 든 채 들어갔다. 그랬더니 우치 녀석이 번개처럼 나에게 달려와 나를 자기 머리로 밀어 코너로 몰아 거의 압사당할 뻔 했다. 태국 조련사들이 그 꼴을 보고 한참 웃더니 가만히 독수리 부리모양 꼬챙이를 하나 손에 들려주었다. 될 수 있으면 그걸 안 쓰려 했건만. 그런데 효과는 즉방이었다. 그걸 들고 들어가면 달라 들다가도 분에 겨워 끄끙대면서도 뒤로 차츰차츰 물러선다. 큰 코끼리를 조그만 인간이 다루는 데는 칭찬으로만 부족하다는 걸 아프게 깨닫는다. 저번 달 태어난 기린 초롱이 역시도 처음에 키우는 게 코끼리 못지않게 호락호락 하지 않았다. 아비인 수컷(밀레린)이 질투를 해서 초롱이와 어미(아린)사이를 파고들어 자꾸 갈라놓는 통에 젖을 제대로 빨지 못해 눈치 젖을 먹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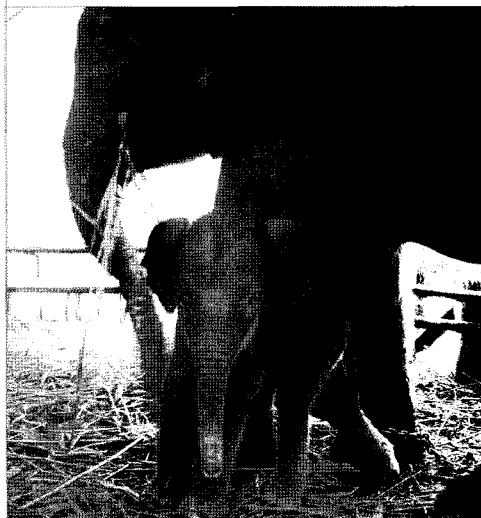
그래서 극약 처방으로 날마다 오전에 수컷과 어미를 내실과 방사장으로 따로 따로 갈라놓는 고된 작업을 한달 내내 수행해야 했다. 한 나절이나마 아비인 수컷의 방해 없이 안심하고 실컷 어미젖을 빨라는 우리의 작은 배려였다. 그 분리 과정에서 평소 얌전했던 밀레린이 앞발을 들고 가두려고 들어간 사람들을 공격하는 통에 솔직히 이제야 말하지만 매우 살벌했었다. 가두는 내내 머리 뒷 끝이 빋빋 서기도 여러 번이었다. 그렇게 어렵게 한달을 보내고 나니 밀레린도 체념하고 새끼도 야채를 야금야금 먹기 시작해서 굶어죽을 염려가 없어지자 드디어 세마리가 무사히 한 가족을 이루어 잘 살아가게 되었다. 코끼리는 몸무게와 코가 날마다 늘어나는데 비해 기린 새끼는 날마다 목 길이가 한 뼘 이상 쑥쑥 자라나는 재미난 특징이 있다.

한 달 전 흥부리 황새 부부는 절벽 꼭대기 원래 자기 둥지를 이룬 봄내 정비하고 알을 품는가 싶더니 드디어 그곳 펜트하우스에서 새끼를 두 마리나 부화했다.



## 연재

+  
신나게 커가는 새끼들



그리고 햇볕이 아주 강하게 내리쬐거나 태풍이 불거나 비바람이 칠 때면 그 큰 날개를 활짝 펴서 난관이 지날 때까지 새끼들을 꼭 감싸 안고 보호한다. 수컷이 지치면 암컷이 교대로 그렇게 하고, 한 마리는 늘 새끼 먹을 식량을 목에 담아오려고 위아래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한다.

사실 그걸 지켜보면서 이제 갓 나온 새끼보다 오래 키워 온 귀한 부모 황새들이 새끼 키우다가 혹시 탈진해 버리지 않을까, 괜히 새끼 나서 생고생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늘 앞선다. 난 날마다 아침이면 사무실 유리창 앞에 서서 그들이 커가는 모습을 아주 배울 좋은 망원경을 구입해서 감시 아닌 감시를 하고 있다.

새끼들은 처음에 하얀 벌거숭이더니 어느새 깃털이 나고 부리가 점점 길어졌다. 두 달이 지난 이젠 제법 부모와 닮아 보이기까지 한다. 언제나 그 높은 곳에서 스스로 날아서 화려한 아랫동네로 내려올지 차츰 초초하게 기다려진다.

새끼들이 커가는 과정을 보면 볼수록 전라도 말로 참 오지게 신나는 광경들이다. 그래서 열대 우림 기후 속에 빠져있는 듯한 이번 여름이 결코 지루하거나 힘들지만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모든 수고로움을 감내하고 있는 저 위대한 엄마들 그리고 가끔 가시고기 같은 아빠들에게 저절로 경의를 표하게 된다. Fin~

